

강진군 '문화재활용사업', 전국 10대 콘텐츠 선정

시문학파기념관 '더 샵 252영랑생가' 프로그램 우수기관 선정 감성 콘서트·영랑실버시인학교·사랑방 이야기 등 개발 운영

강진군의 문화재 활용정책이 전국에서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시문학파기념관이 기획한 주민주도형 프로그램 '더 샵 252 영랑생가'가 전국 15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2020년도 생생문화재 부문 평가에서 강진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문화재청장 표창과 포상금을 받았다. 문화콘텐츠 '더 샵 252 영랑생가'는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온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영랑생가 감성 콘서트를 비롯해 ▲영랑실버시인학교 ▲

영랑생가 사랑방 이야기 ▲영상으로 만나는 영랑생가의 4계 등 주민주도형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영랑생가의 문화재적 가치를 재창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화재청 '생생문화재 사업'은 기존의 박제된 문화재 보호정책에서 탈피해 지자체가 문화재에 내재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교육·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프로그램으로, 문화유산을 문화콘텐츠로 활용코자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한 국책사업이다. 이승욱 군수는 "강진군의 '더 샵 252

영랑생가' 문화콘텐츠가 전국 10대 우수 사업에 선정된 것은 4만 국민의 뜨거운 성원에 관심의 결과"라면서 "올해까지는 영랑생가를 알리는 데에 중점을 뒀다면, 내년에는 인문학적 사유를 가미한 '인문도시 강진' 구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2년부터 시작한 문화재 활용사업 '더 샵 252 영랑생가'는 2016년 전국 첫 문화재청 '명예의 전당' 등재에 이어, 10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진기록을 세웠다. 강진=김영일기자



시문학파기념관이 기획·운영한 '더 샵 252 영랑생가' 프로그램이 전국 15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2020년도 정부평가에서 우수 사업으로 선정돼 10일 문화재청장 표창을 받았다.

장흥 수문항 '어촌뉴딜 300' 선정...사업비 90억원 확보

장흥군이 해양수산부 '2021년 어촌뉴딜300 공모사업'에 안양면 수문항이 최종 선정돼 사업비 9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어촌뉴딜300 사업 선정에 따라 수문항 일원에는 2021년부터 3년 동안 어업기반시설 확충, 해양관광자원 개발 등 어촌 6차 산업화 사업이 진행된다. 장흥군은 2018년 회진 노력항을 시작으로 관산 우산항, 회진 신상·신기항, 대리항에 이어, 5번째로 안양 수문항이 어촌뉴딜300 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최종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수문항은 키조개를 중심으로 한 풍부한 수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브랜드 인지도가 낮고 마을 구성원 대부분이 고령화됨에 따라 우수한 수산자원을 현대적 마케팅에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장흥군은 이번 어촌뉴딜300 사업 선정을 통해 열악한 어촌·어항 기반 정비



완도군농업기술센터와 농업중앙회 완도군지부가 올해 협력 사업으로 열대 과수인 바나나 소득화 사업을 추진을 위해 완도읍 장좌리에 바나나 시설하우스 2,000㎡를 조성하였다.

내년에 '완도산 바나나' 맛볼 수 있다 지난 10월 바나나 묘목 450주 식재...1년 후 수확 가능

완도는 한반도 최남단에 위치하여 다른 지역보다 겨울철 기온이 따뜻하고 시설하우스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어 아열대 작물 재배에 적합한 곳이다. 완도에서 비파, 유자, 감귤, 참다래, 만감류 등 아열대 과수가 재배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에 지난 2월에는 바나나를 재배할 농업인을 선정하고 시설하우스를 신축, 10월에 바나나 묘목 450주

를 식재하였다. 식재된 바나나는 한겨울 야간에도 22℃로 관리되고 있어 1년 후면 수확이 가능하다. 내년 10월, 완도에서도 친환경으로 재배한 바나나를 맛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바나나는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지만 수입 바나나의 경우 국내에 들어 오기까지 한 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기간 수송과 검역 과정에서 약품 처리가 이뤄지기도 한다. 이에 안전성을 중요시하는 요즘 친환경으로 재배되는 국산 바나나에 대한 관심이 높다. 국산 바나나는 수입 바나나보다 두 배 정도 높은 소매가 형성돼도 신선함과 안전성 면에서 경쟁력이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아열대 과수 수요 증가 등 국내 시장의 변화에 대응해 따뜻한 완도의 기후를 활용한 아열대 작물 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농가 소득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김영수기자

2021년부터 3년간 사업 진행 키조개테마공원 조성 경쟁력 ↑

하고 키조개 테마공원을 조성해 키조개 브랜드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귀어·귀촌 멘토링제도를 도입해 청장년층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해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데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문화와 관광분야의 인프라 재 정비와 주민 편의를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수문해수욕장 내 쉼터와 휴양시설과 확충하고, 인근에는 바지락 캐기 등 어촌 체험이 가능한 장비와 시설을 구축한다. 어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어항을 따라 난간을 설치하고, 가로등과 CCTV도 설치할 계획이다. 마을 안쪽 골목길은 바닥을 정비하고 벽화로 꾸미는 등 경관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휴식처가 될 수 있는 자투리 공간을 확보할 예정이다. 기존의 키조개 전시장은 리모델링과 증축을 통해 키조개 푸드체험장, 마울림, 주민 쉼터 등으로 활용 폭을 넓힌다. 정준순 장흥군수는 "어촌뉴딜300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어촌 개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안전적인 어촌 재생기반을 구축해 지역경제 발전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해남군, 공모사업 일냈다

올해 101건 1172억원 확보

해남군이 올해 100건이 넘는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해남군은 중앙부처·전남도 등 외부 기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101건이 선정돼 사업비 1,172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전년도 67건, 754억원에 비해 선정 건수 33%, 총사업비 35%가 증가한 수치이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100억원 규모의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땅끝해남을 리폼하다)을 비롯해 2020년 지

역수요 맞춤형 지원 공모사업(강진군 연계 전통정원 조성사업),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 등이 선정되어 해남군 관광지를 직접화하고, 체류형 관광기반 조성을 추진한다. 또 2020년 발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연구-지도-민간 블렌딩 모델화사업(아열대 과수 육성사업), 2021년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2021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2021년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시범사업 등이 선정되어 농정·유통·산림 분야에도 큰 성과를 나타냈다. 기동취재본부

진도군, 진도읍 교통불편해소...남천3교 준공·개통

올해 4월부터 12억원 투입 길이 25m 폭 9.5m로 건설

한 통행로였다. 하지만 진도천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하천폭 25m가 확장되어 도시계획도로 선형에 맞게 올해 4월부터 12억원을 투입해 길이 25m, 폭 9.5m의 교량으로 새롭게 건설됐다. 교량이 재가설 개통됨에 따라 진도읍 남동리와 쌍정리 마을 주민의 교통 불편이 해소되고, 지역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도=조상용기자

특히 선형이 좋지 않은 진도군 산림조합주모관 앞 하천 도로는 전라남도에서 내년에 발주하는 진도천 정비공사 시기에 맞춰 하천 폭을 넓히고 선형을 개량할 예정이다. 진도군 건설교통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연재해와 관련 예방 중심의 사업을 적극 추진해 군민 생활 안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남천 3교에 이어 국도18호선과 남동리 일원을 연결하는 남천1교 재가설 공사를 내년 장마철 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진도=조상용기자

책과 함께 즐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